

박동원·놀린·소크라테스 복귀... KIA 완전체로 순위 싸움

포수 박동원 엔트리 등록
투수 놀린 27일 NC전 등판
소크라테스 8월 2일 1군에



'호랑이 군단'이 발톱을 세운다. KIA 타이거즈가 순위 싸움을 위한 완전체를 구성하고 있다. 포수 박동원이 먼저 전력에 가세했다. 박동원은

발목 부상으로 지난 9일 엔트리에서 탈락했다. 회복이 완전치 않아 후반기 시작과 함께 선수단에 합류하지 못했던 박동원은 퓨처스리그에서 컨디션을 점검했다. 22, 24일 KT 위즈와의 퓨처스리그 경기에 출전한 그는 두 번째 경기에서는 홈런포를 날리면서 '이상 무'를 알렸고 26일 엔트리에 재등록했다. 27일에는 외국인 투수 선 놀린이 돌아온다. 놀린은 5월 25일 왼 종아리 근육 부상으로 엔트리에 탈락한 뒤 오랜 시간 자리를 비웠다. 긴 재활의 시간을 보낸 그는 7월 13일 상무야구단과의 퓨처스 경기를 통해 다시 마운드에 올랐다. 그리고 22일 KT전에서 4이닝 무실점의 피칭을 선보이면서 1군 풀업이 확정됐다. 놀린은 27일 NC 다이노스와의 홈경기를 통해서 1군 복귀전에 나서게 된다. 그는 4이닝, 7구를 기준으로 해서 복귀 후 첫 등판을 소화하게 된다. 놀린이 가세하면서 선발진에도 변화가 생겼다. 전반기에 선발로 역할을 맡았던 한승혁이 불펜으로 자리를 이동했다. 김종국 감독은 26일 "한승혁이 오늘부터 불펜에서 대기한다"며 "6회 장현식 앞에 투입할 것이다. 선발이 5회 이전에 중요한 상황이 되면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초반에 6회 이전에 선발



박동원

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쓸 것이다"고 계획을 밝혔다. 소크라테스도 26일 챔피언스필드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지난 20일 재활군에 합류해 복귀 시동을 걸었던 소크라테스는 이날 1군 선수단과 훈련했다. 1군이 홈 6연전을 펼치는 동안 2군 선수단이 26, 27일 올산 원정에 나서면서 소크라테스는 광주에



놀린

서 컨디션을 끌어올린다. 그리고 29일 합평에서 열리는 삼성 라이온즈와의 2군 경기를 통해 실전 감각을 점검받는다. 실전 테스트에서도 합격점을 받으면 소크라테스는 8월 2일 한화 이글스와의 경기를 통해서 1군에 복귀하게 된다. 김종국 감독은 "주말 퓨처스 경기에 나갈 정도가 된 것 같다. 빠른 볼도 보고, 빨리 감을 회복한 뒤에



소크라테스

팬잡다고 하면, 부상 회복했다고 하면 다음 주 초에 풀업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무엇보다 뜨거운 바람이 KIA에 반갑다. KIA는 올스타브레이크 기간 4일을 쉬었다. 휴식기가 길었던 만큼 타격감을 격정했지만 사령탑의 우려와 달리 KIA는 롯데 자이언츠와의 후반기 첫 대결에서 화끈한 화력전을 펼쳤다. 김종국 감독은 "실전 감각을 격정했는데 첫날 반

즈 공력을 질한 것 같다. 찬스 왔을 때 집중력이 좋아졌다. 이 감이 오래 지속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타격감이 올라왔을 것이라 생각하고, 기대감도 생긴다"고 언급했다. 뜨거운 타격으로 후반기를 연 KIA는 부상병들의 복귀까지 더해 8월 순위 싸움에 돌풍을 예고하고 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오구 플레이' 실토...윤이나 어찌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투어에 혜성처럼 등장해 인기몰이에 나선 '장타 여왕' 윤이나(19)가 대회 도중 규정을 위반했던 사실을 실토하고 자숙의 뜻으로 대회 출전을 잠시 중단한다고 25일 밝혔다. 윤이나는 이날 매니지먼트를 맡은 크라운을 통해 발표한 사과문에서 지난달 16일 DB그룹 한국여자오픈 1라운드 15번 홀에서 오구 플레이를 했다고 털어놨다. 러프에 떨어진 볼을 쳤는데 그린에 올라가 보니 자신의 볼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냈지만 그대로 경기를 이어갔다고 윤이나는 고백했다. 윤이나는 "처음 겪는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순간 판단이 서지 않았다"면서 "선수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 사죄했다.

KLPGA 투어 깜짝 인기 스타 한 달 넘게 숨기다 뒤늦게 인정 당분간 대회에 출전 않기로 골프협, 공정위서 징계 결정할 듯

"전적으로 저의 잘못"이라고 고개를 숙인 윤이나는 "협회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그에 따른 조치를 달게 받겠다"고 다짐했다. 윤이나는 "성적에만 연연했던 지난날을 처음부터 되짚어 보며 반성하는 시간을 갖겠다"면서 당분간 대회에 출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올해 KLPGA투어에 뛰어난 신인 윤이나는 300야드를 넘나드는 화끈한 장타력으로 일찌감치

주목을 받았고 지난 3일 맥클·모나파크 오픈 준우승에 이어 17일 에버블라켄 퀸즈 크라운 우승으로 KLPGA투어 최고 인기 스타로 발돋움했다. 윤이나는 다음 달 4일 개막하는 KLPGA투어 하반기 첫 대회 제주삼다수 마스터스 출전을 취소했다. 크라운 관계자는 "윤이나 선수가 심리적으로 매우 힘들다. 이벤트나 광고 촬영, 미디어 인터뷰 등 모든 활동을 중단했다. 언제 필드로 복귀할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골프협회는 "윤이나가 오구 플레이를 했다"고 지난 15일 자진 신고했다"면서 윤이나의 한국여자오픈 성적을 컷 탈락에서 실격으로 수정하고 한국여자오픈 출장 정지를 비롯한 징계는 스포츠 공정위원회를 소집해 결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KIA, 30일 SSG와 경기 '광주유니폼' 입는다

29일에는 '호랑이의 날' 이벤트

KIA 타이거즈 30일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리는 SSG 랜더스와의 경기에서 '광주유니폼'을 입고 뛴다. <사진> 광주 유니폼은 흰 바탕에 광주의 영문인 'GWANGJU'가 감청색으로 수놓아졌으며, 노란색 테두리로 포인트를 줬다. 모자 역시 감청색 T 로고에 노란색의 테두리가 들어갔다. 감청색과 노란색은 광주시의 상징색이다. 유니폼의 어깨와 모자 옆에는 광주의 지형도를 바탕으로 해 랜드마크인 무등산 서석대와 챔피언스 필드 이미지를 조합해 만든 엠블럼이 부착된다. KIA는 광주 연고팀으로서 자부심을 강조하고, 지역민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 지난 2020년 광주 특별 유니폼을 만들었다. KIA는 이날 광주유니폼을 입고 광주에서 펼쳐지는 프린지페스티벌, 광주국제영화제, 맥주축제 등 홍보할 예정이다. 앞서 29일에는 '호랑이의 날' 이벤트가 진행된 다. 국제 호랑이날(7월 29일)을 맞아 준비한 이날 행사의 시구는 챔피언스필드 계단에 호랑이 벽화를 그린 황중환 조선대학교 애니메이션학과 교수가 맡는다. 이날 경기에 앞서 '송포유'팀의 '코리아 타이거' 공연도 펼쳐진다. 송포유는 대형 호랑이 인형과 함께 신나는 노래로 분위기를 띄울 예정이다. KIA는 또 경기장 안에서 호랑이 이미지나 캐리



터와 함께 사진을 찍어 SNS에 업로드하면 추첨을 통해 경품을 증정한다. KIA는 지난 2018년 국제적 멸종위기 1급 동물이자 우리공원 동물원을 대표하는 백두산 호랑이의 보존 사업을 알리고, 우리공원을 찾는 광주시민들에게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백두산 호랑이와 새끼 2마리가 함께 있는 조형물을 건립해 광주시에 기부하기도 했다. 한편 KIA는 NC-SSG와의 홈 6연전을 맞아 31일까지 매일 경기장에 입장하는 관객 1000명에게 가능성 패치 제조업체인 메디셀의 후원을 받아 하이드로겔 아이패치를 선물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임성재, PGA 투어 3년 연속 상금 400만 달러 돌파

임성재(24)가 한국 선수 최초로 미국프로골프(PGA) 투어에서 3년 연속 상금 400만 달러(약 52억3000만원)를 돌파했다. 임성재는 25일(한국시간) 미국 미네소타주 블레인에서 끝난 PGA 투어 3M오픈에서 공동 2위를 차지했다. 준우승 상금 66만7500달러를 받은 임성재는 2021-2022시즌 상금 432만2024달러를 기록했다. 이로써 임성재는 2019-2020시즌 상금 433만 7811달러, 2020-2021시즌 415만7182달러에 이어 3년 연속 시즌 상금 400만 달러를 넘겼다.

상금 순위로는 이번 시즌 18위, 2020-2021시즌 22위, 2019-2020시즌 9위에 해당한다. 한국 선수의 역대 한 시즌 최다 상금 기록은 2007년 최경주(52)의 458만7895달러다. 임성재가 이번 시즌 이를 돌파할 가능성은 매우 크다. 다만 2007년 최경주의 상금 순위는 5위였다. 최경주는 2011년에도 443만4691달러를 벌여 상금 순위 4위에 올랐다. PGA 투어 통상 상금으로는 최경주가 3280만 달러로 32위, 김시우가 1655만달러로 115위다. 임성재는 1570만달러로 123위에 올라 있다. /연합뉴스